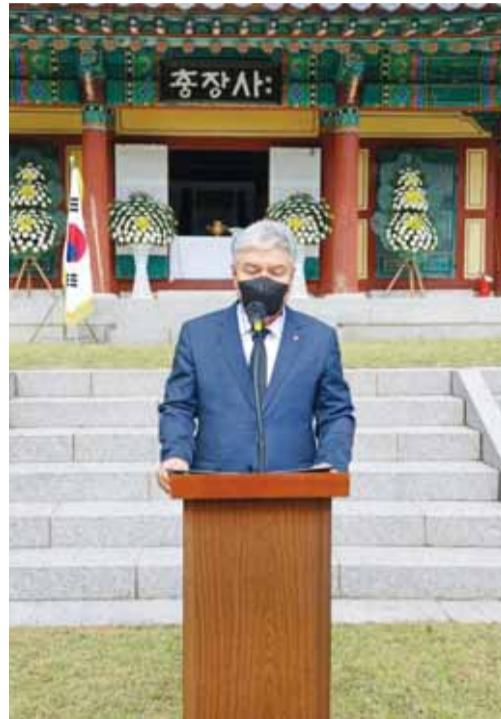


[월간] 2021年 9月 1日(수요일)

대표전화 (02)2695-2483~4 FAX (02)2695-2485 www.andongkwon.org

權氏 紀元1092年 第 555 號

제429주년 충장공 권율도원수 이치대첩 기념행사 봉행



추념사를 하고 있는 문정우 금산군수

제429주년 충장공 권율도원수 이치대첩 기념 행사가 8월 26일 10시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에 위치한 충장사에서 문정우 금산군수,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 길재식 금산경찰서장, 양정숙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윤규 금산소방서장, 장호 금산문화원장, 강희천 진산면장, 이봉모 진산파출소장, 최명수 금산군의회 부의장, 김근수, 심정수, 김왕수, 신민주 금산군의회 의원, 권행완 안동권씨 대종회 편집국장, 권경관 금산종친회장, 권성기 전 금산종친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일 이치대첩제 추진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장호 금산문화원장의 승전 보고, 문정우 금산군수와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의 추념사, 현화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장호 금산문화원장은 승전보고를 통해 “이치대첩은 1592년 임진왜란 시 육전에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이다. 이번에 문화원에서는 처영 스님이 1000여명의 승리를 이끌고 이치대첩에 참전했다는 기록을 찾았다.”

이처럼 금산문화원에서는 금산지역에서 벌어졌던 임진왜란 기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치대첩은 전략상 요충지인 배티고개에서 광주목사 권율장군은 1500여명의 장졸을 배치하고 목책 등을 설치하여 방어진을 구축한 후 군대 규모에 있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연전연



승하며 기세등등한 왜군을 맞아 ‘오늘 이 싸움은 전진만 있고 후퇴는 없으며 죽음만 있고 삶은 없다’며 전투의지를 다했다. 선봉장 황진 회순현감이 부상을 당하여 수세에 몰리자 권율장군은 장검을 뽑아 들고 결사향전할 것을 독려하였다. 하늘을 찌를 듯 사기가 뻗쳐 오른 1500여명의 군사는 1만여명의 왜군을 물리쳤다. 이처럼 이치대첩은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구한 승리의 전투였다”라고 보고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추념사에서 “1592년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관군과 백성, 의병이 하나가 되어 이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임진왜란 당시 육지에서 최초로 승전고를 울렸다. 이치대첩은 전쟁의 전세를 바꾸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투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금산군에서는 선열들의 위대한 업적과 전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2000년 9월 20일 충남

기념물 154호로 지정하였고, 2019년에는 이치대첩을 국가사적지도 승격시키기 위해 학술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금산군은 이치대첩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며 “코로나로 인해 축소해서 행사를 거행하지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상님들처럼 하나로 뜻을 뭉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추념사를 마쳤다.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은 추념사에서 “이곳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권율 장군과 휘하 관군과 의병 등이 2만여 명의 왜군을 물리쳐 곡창지대 호남을 사수하고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바꾼 계기가 된 전투이자 국난극복의 원동력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한 권율장군을 비롯하여 휘하 관군과 의병들의 업적을 기리고 이곳을 역사적 전적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금산군의회도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소독, 체온 체크 등을 준수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권해옥 대종회 회장과 권영범 충장공종중 회장, 권경관 금산종친회장은 화환을 보내 제429주년 이치대첩제를 기념했다.

행사가 끝난 후 권행완 편집국장과 권성기 전 금산종친회장은 임진왜란의 또 다른 전적지인 금산 개티전투의 현장을 답사하였다. 개티전투는 이치대첩이 벌어지기 약 보름 전에 전내강 근처에서 권종(權悰) 금산군수가 아들 권준(權浚)과 동생 권열(權悅) 등 수백명의 백성들과 함께 왜군에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역사의 현장이다. 이 전투에서 아들 권준과 동생 권열도 전사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300여년이 지난 1878년(고종15)에서야 조정에서는 권종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권충민공순절유비(權忠愍公殉節遺壙碑)를 세웠다. 권종은 권율 장군과 사촌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안동권씨 추밀공파 양정공·승훈랑공 종친회
충주시에 코로나 극복 성금 1억 원 기탁



권오협 회장, 조길형 충주시장, 권혁중 양정공회장, 권현상 승훈랑공회장(왼쪽부터)

안동권씨 충주 종친회(회장 권오협) 양정공 종중(회장 권혁중) 승훈랑공 종중(회장 권현상)에서는 지난 7월 23일 충주시를 방문해 코로나19 극복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종친회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종중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길형 시장은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으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주신 안동권씨 양정공·승훈랑공 종친회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길형 시장에게 전달한 성금은 종중 사업수익금으로 조성됐으며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쓰이게 된다.

8月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임원선임>

권정복 부회장(삼척시의원) ('21.08.30자)

<찬조금>

권영한 고문 1,000,000

종무위원

권오창(영주) 200,000

권오수(안동) 200,000

총 : 1,4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종회

仲秋佳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100만 족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안동권씨 대종회장 권해옥 외 임직원 일동